

“주민과 함께 전국 최고 인권도시 만들겠다”

김영집 광주 남구 인권증진위원장

인권콘서트·역사투어·아카데미 등 지속 발전 도모
생활속 인권의식 실천·집행부 시책 적극 협력해야

“남구 인권증진위원회(이하 인권위)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생활 속에서 잘못된 반인권적 삶과 생활을 해소시키고, 인간 존중과 평등을 실현시키기 위해 부지런히 뛰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구 인권위는 관내 주민들과 함께 전국 최고 ‘인권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겠습니다.”

최근 광주 남구 인권증진위원회장에 취임한 김영집 신임 위원장은 이같이 말하며 각오를 다졌다.

김 위원장은 과거 민주화운동 등 활발한 인권 활동을 통해 인권위 위원들의 호평을 받으며 지난달 25일 취임했다.

김 위원장은 “올해 인권위는 작년에 이어 인권 취약계층에 찾아가는 인권교육, 공직자 인권교육, 주민들과 함께하는 인권콘서트, 인권역사투

어, 인권아카데미 등을 지속 발전시킬 계획”이라며 “신규 사업으로는 오는 8월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40주년을 맞는 5·18기념행사, 5·18남구포럼 등 당시 남구 송암동 및 호천역 일대서 확산된 영령들의 진혼문화제를 열 것”이라고 사업 추진 계획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인권위의 역할을 강조하며 자신의 소신도 내비쳤다.

그는 “우리의 인권은 제도적인 인권정책과 시책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몇 가지 행사와 교육으로도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며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인권의식을 함양하고, 일상에서 인권을 실현시켜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인권도시는 주민과 함께 만드는 것”이



라며 “주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 실천에 노력하고, 집행부의 인권시책 시행에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인권위는 5년마다 남구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인권증진기본 계획을 만들어 주

민들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실시, 인권활동가 양성 등의 일을 지속해야 한다”며 “각종 기획, 연구, 발굴 등 필요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우리 사회가 점차 기득권들의 갑질과 횡포가 만연해져 인권조차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다.

‘사람의 가치를 돈과 권력의 다음에 두고 경시하지는 않았나’, ‘여성·장애자·약자라고 손해를 입히고 괴롭히지 않았나’, ‘남에게 피해를 주고, 무분별한 활동으로 전염병이나 사회악을 확산하지 않았나’ 등의 반인권적 실천은 절대 금물이다. 그는 “인간의 존중과 평등을 실현하는 것이 곧 ‘인권’이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다양한 방법과 매체를 통해 주민들에게 우리의 비전과 계획을 적극 알리면서 주민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인권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남구가 전국 최고 ‘인권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저부터 앞장서서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남구 인권증진위원회는 남구 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2년부터 구성·운영돼왔다. /김동수기자



광주동부교육청, 점심시간 이용 면마스크 만들기 참여

광주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은 코로나19 극복 나눔 공동체 문화 확산 동참을 위해 3~10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면 마스크를 만들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면 마스크 만들기는 광주시교육청 시민참여담당관실에서 실시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면 마스크 만들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시작했다.

동부교육지원청은 시민참여담당관에서 지원

받은 마스크 키트로 면 마스크 100장을 제작해 관내 특수학교 학생들에게 보급할 예정이다.

동부교육지원청 김주신 과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동부교육지원청 직원들이 자발적 사회적 나눔 및 기부 문화 확산에 동참하기로 했다”며 “지역 곳곳으로 나눔 문화가 널리 퍼져 우리 모두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권범기자



조선대 직원노동조합, 10일까지 ‘헌혈봉사 주간’ 운영

조선대학교 직원노동조합은 코로나19로 심각해진 혈액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조선대 헌혈봉사 주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조선대 직원노동조합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헌혈 참여 감소로 전국적으로 혈액 수급이 어려워지고 있어 교육기관으로서 릴레이 헌혈봉사를 기획했다.

헌혈봉사 주간은 이날부터 10일까지며, 조선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

양고승 위원장과 김광원 부위원장을 포함한 조선대 직원노동조합 상무집행위원과 대의원들은 구성원들의 헌혈 봉사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지난 2일 오전 헌혈에 미리 동참했다.

양 위원장은 “상무집행위원 및 대의원의 헌혈 봉사를 시작으로 구성원 릴레이 헌혈봉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국가적 위기 극복과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최권범기자

전남도-적십자사, 지역 독거노인에 생필품세트 전달

전남도와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는 최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생필품세트를 제작해 여수시 소라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에 전달된 생필품세트는 광주전남 적십자사에서 진행중인 코로나19 극복 성금 모금캠페인을 통해 모금된 금액 2억5천만원(보광건설 1억원, 광주은행 1억원, 보성건설 5천만원)으로 제작됐다.

생필품세트는 쌀포, 차약 등 7개 품목으로 구성됐으며, 총 제작수량은 1만9천763세트로 전남도 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45곳을 통해 독거노인 1만9천763명에게 전달된다.

이재승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사무처장



은 “적십자사가 코로나19 모금캠페인을 통해 마련된 기부금으로 물품을 준비하고, 전남도와 복지관에서 지원대상자 선정부터 배부까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동수기자



광주보건대 교수학습지원센터, SCAF 교내 전문연수

광주보건대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는 최근 여호수아관 치위생정보학실에서 제2차 SCAF 교내 전문연수(학습지도자 과정)를 개최했다.

SCAF는 학습지도자(Supervision), 학습상담자(Counselor), 학습조력자(Assistant), 학습촉진자(Facilitator)의 줄임말로, 이번 전문 연수는 학습지도자 강의로 열렸으며 대학의 전임교원, 비전임교원 및 교직원들의 신청을 받아 진행됐다.

강의는 교무정책팀장이자 교수학습지원센터장인 문일봉 교수가 ‘웹캠과 헤드셋을 이용한 동영상 강의 제작’과 ‘Zoom을 이용한 온라인 강의’의 2트랙으로 운영됐다.

정명진 총장은 “여량 강화를 위해 협조주셔서 감사하다”며 “다양한 비대면 수업 방식을 활용해 질 높은 강의와 교육 만족도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권범기자



나주시·경찰서, 동신대 외국인 유학생에 마스크 기부

동신대학교는 최근 나주시 안전재단과 나주경찰서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1천장을 학교에 기부했다고 6일 밝혔다.

동신대는 나주시와 나주경찰서의 뜻에 따라 마스크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유학

생들에게 마스크를 나눠줄 예정이다.

동신대 국제교육원장실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최영조 동신대 사무처장(사진 오른쪽 두번째), 나상수 나주시 안전재단과 사회재단팀장(왼쪽 세번째), 홍재욱 나주경찰서 정보보안과 보안계장(왼쪽 첫번째) 등이 참석했다. /최권범기자

지스트대학 김병진씨

쇼미더사이언스 시즌2 우수콘텐츠 선정



광주과학기술원(지스트)의 학사과정인 지스트대학의 김병진씨(전기전자컴퓨터전공 4학년)가 제작한 콘텐츠가 ‘쇼미더사이언스 시즌2’ 인포그래픽 부문에서 우수콘텐츠로 선정됐다.

‘나도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다!’ 사용자 참여형 콘텐츠 공모전으로 진행된 ‘쇼미더사이언스 시즌2’의 작품 공모는 2019년 12월10일부터 올해 2월29일까지 진행됐다.

올해는 총 8개의 우수 콘텐츠가 선정됐으며, 그 중 김씨가 제작한 콘텐츠는 인포그래픽 부문에서 11개의 출품작 중 5천200점의 점수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다.

김씨는 ‘잠의 과학’을 주제로 ‘잠이 무엇인가’, ‘일주일 동안 잠을 자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얼마나 잠을 자야 하는가’의 내용을 담은 인포그래픽 콘텐츠를 제작했다.

김씨는 “지스트 학생 홍보대사 ‘지은나라’에서 디자이너로 일한 경험이 인포그래픽을 디자인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됐다”면서 “앞으로 과학 문화와 관련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최권범기자



남부소방서, 재난상황 대비 팀전술훈련

광주 남부소방서는 6일 “다양하게 변화하는 재난 상황을 대비하고 전문기술 연마를 위해 팀단위 소방전술훈련에 매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훈련의 주요내용은 ▲개인 장비 착용 및 장비 점검 ▲화재 발생에 따른 방수훈련 ▲사다리 전개 및 등반 등으로 진행됐다. /김동수기자



동부경찰서, 빈집 방범활동 전개

광주 동부경찰서(서장 양우전) 생활안전계는 지난 4일 관내 빈집을 대상으로 방범활동을 강화했다. 생활안전계 운시연 경감 등은 이날 동구 소재 학동제개발지역 철거 전 빈집에 대해 출입문과 창문 등 시정상태를 점검했다. /오승지기자

결혼

- 강동원(전 조선대 총장)·박광미씨 아들 병문군, 한중상·노명숙의 딸 현정양=12일(일) 오후 3시 더케이호텔서울 3층 크리스탈볼룸.
- 김태운(아시아문화학술원장)·김국선씨 아들 선호군, 정상문(승산P&M·승산ENG 회장)·조진씨 딸 미현양=11일(토) 오후 5시30분 드메르웨딩홀 4층 라비엔홀.
- 박형래(전 대한석탄공사 국장)·이귀례씨 장남 노익군, 배승수(광주영아방송 사장·전 광주MBC 보도국장)·고은숙씨 장녀 윤경양=11일(토) 오후 2시 광주 서구 광천동 웨딩그림 위더스광주 5층 엘리온.
- 추석호·김중희씨 아들 연수군, 윤항병(신세계 D&C 대표)·유미선(전남도교육청 나주시화유치원장) 딸 현진양=11일(토) 오후 1시10분 서울 잠실 디베네치아웨딩홀 3층.
- 한규태·홍미숙씨 장남 진석군, 류백현(송원대학교 교수)·임진(전북 순창 희망병원 약사)씨 장녀 주현양=11일(토) 오후 1시30분 서울대학교 교수회관, 당일 오전 8시 국립광주박물관 주차장 전세버스 출발.
- 오정일·하미라씨 장남 평갑군, 조순호·신은영씨 장녀 은누리양=11일(토) 오후 2시 광주 서구 벽진동 제이아트웨딩홀 1층 아모레홀.
- 최해규·최은애씨 차남 종욱군, 이경(대림종합건설 회장)·국춘화씨 차녀 유현양=25일(토) 낮 12시 홀리데이인 광주호림 3층 컨벤션홀.

모집

●(사)한국통합의학포럼 제6기 당뇨힐링캠프 참가자 20명 선착순 모집=5~6월 예정, 장소 담양힐링센터, 1박2일 캠프 참가자도 수시모집, 문의 062-972-8074(김보배).